

꽃 위에 내려앉은 철의 시간

철박물관





봄이 왔다는 말이 무색하게 여름이 손을 내민다. 짧은 벚꽃의 계절을 지나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충북 음성 의 철박물관에서 다시 봄을 마주한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 사이로, 우뚝 서 있는 박물관은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공존하는 색다른 풍경을 만든다.

글·사진 김효정

I
R
O
N
M
U
S
E
U
M

철과 꽃의 조화로운 공간

과학 시간에 수도 없이 들었던 원소기호 Fe, 원자번호 26번. ‘철’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무겁고 단단한 느낌 때문이었을까. 이런 목가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상상하지 않았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드넓은 잔디밭,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반려견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까지, 철박물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철박물관 실내 전시실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철운석(iron meteorite)이다. 철운석은 주로 철과 니켈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운석이다.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한 철은 운석이다. 운석은 흔히 유성(별뚥별)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지구의 대기와 충돌하며 남은 것으로,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로부터 떨어진 자연 물질이다. 인간이 광물에서 철을 뽑아내는 기술을 발명하기 전인, 기원전 3000년 경인 서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과 1100년 전 중국 은나라 시대에도 철운석을 사용한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철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사이디나 맥주병 뚜껑, 프라이팬, 냄비, 노트북, 휴대폰, 손톱깎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철은 흔하게 존재한다. 너무나도 친숙하고 단단한 금속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철박물관 1층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철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된다. 5월마다 돌아오는 시골 장날,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 사람과 물건을 팔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별경계 달궈진 쇳덩이를 두드리며 대장간 아저씨와 뽕튀기 기계 앞에서 귀를 막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모두 철이 있어 가능한 풍경이다.

두드린 끝에 열린 길

공예 분야에서도 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속은 넓게 퍼지거나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다. 열 가공에 따라 단단한 정도도 달라져 무기에서부터 장신구까지 생활 전반에 쓰이는 중요한 물질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다양하다. 형태를 만드는 단조와 주조, 입사, 새김, 맞새김 등 표면을 장식하는 여러가지 세공법이 존재한다. 시대별 금속 공예품에는 그 시절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대 금속 공예는 물성이 다른 재료의 조화를 통해 쓰임과 예술을 넘나드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한다. 이처럼 철의 종류와 쓰임, 제조 과정, 현대적 의미와 재해석 등 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2층으로 들어서면 <너 나, 우리의 길>이라는 주제의 기획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 탐험했던 항해선의 녹슨 방향키와 나침반, 길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교통 신호판 모두가 철을 이용해 만든 것. 철은 우리에게 '지금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복도를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서면, <두드리다>라는 전시도 볼 수 있다. 철을 두드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철과 두드림으로 만들어진 철에 관해 이야기한다. 1,5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철광석을 달구면 돌에 있던 철이 분리되어 흘러나온다. 이 쇳물은 실온에서는 덩어리로 유지되고, 이를 불에 달궈 두드리면 원하는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전시장에는 아이들이 직접 두드릴 수 있는 화면과 도구(망치)가 마련되어,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실제로 철을 두드려 볼 수 있는 망치와 보안경, 안전모, 장갑도 마련되어 있어 즐거움을 더해준다.

철을 따라 삶을 마주하다

2000년 충북 음성에 개관한 철박물관은 2009년 “iron beyond imagination”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재개관했다. 지속 가능한 박물관 운영을 위해 철 관련 자료 수집과 보존, 학술 연구 활동 및 지원, 교육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info.

철박물관

<https://www.ironmuseum.or.kr/>

관람일 및 시간

실내 전시 : 수요일~토요일

야외 전시 : 화요일~토요일

10:00~17:00

※ 추석 연휴, 1~2월 동절기 정기 휴관

관람료

무료

문의

043-883-2321

주소

충북 음성군 갑곡면 영산로 360

박물관을 방문한 날은 마침, <세연음악회>라는 작은 공연이 열리는 날이었다. 세연음악회는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문화행사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더한다. 이날은 ‘철의 울림, 한국 힙합의 뿌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가리온과 OGS가 흥겨운 무대를 장식했다. 관람객을 위해 마련된 자리는 다 채우지 못했지만,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공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음악회가 열리는 자리 근처로 ‘경주 용명리 석축형 제철로’가 있다. 이 유구는 경주 건천읍 용곡댐 수몰 지구에서 옮겨와 철박물관 자리에 보존하고 있다. 직사각형으로 전체 길이 19.5m, 너비 3.8m로, 중심부에 제철로가 있고, 양쪽으로 숯과 철광석을 옮기는 이동로가 있다.

개인적으로 철박물관은 내부보다 야외 공간에 더 마음을 빼앗겼다. 잘 조성된 산책길에는 향기로운 봄꽃이 가득 피어 발걸음을 붙잡고, 계절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여린 꽃잎을 떨구는 모습에 감탄이 쏟아진다.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시선을 돌린다. 꽃잎은 철로 만든 거대한 조형물 위로 살며시 내려앉는다. 바로 전기로인데, 1963년 일본 우라야마제조 주식회사에서 제작되었다. 1966년 10월~1980년까지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가동되었으며, 약 140만 톤의 철을 생산한 국내 최초 연속주조 기술이 적용되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을 견인한 철강 산업의 시초가 되는 산업 시설물로 인정받아 지난 2013년 8월 27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기로 근처로도 고철, 대형 파쇄 추, 전기 마그넷 후크, 레이들 등 다양한 철조물이 전시되어 있다.

단단함의 기원을 따라 걷다 보면, 결국 사람의 시간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철을 끊임 없이 두드려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 닮았다. 철이든 사람이든, 반복되는 시도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다듬어지며 끝내 자신을 완성해 가는 유연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

